

# 주간기도정보

2024. 12. 17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사 62:7) 주님은 열방의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기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간기도정보는 이 말씀에 근거하며, 열방의 소식들을 진리의 말씀에 기초하여 주님이 일하시도록 기도하는 모임입니다.

진행순서 (1) 예배 (2) 한국과 북한, 다음세대를 위한 기도 (3) 열방을 위한 기도 - 한주간 긴급기도

## 1. 한국교회를 위한 기도

###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리스도 주시니라”

‘성탄 앞둔 대림절, 죄를 회개하며 주님을 맞이하자’

살롬나비, 2024 대림절 논평 발표



크리스마스 전 4주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과 재림을 기다리는 특별한 절기인 대림절을 맞아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오시는 주님을 맞이 해야한다고 살롬나비가 11일 논평했다.

특히 자연재해와 지구촌 전쟁의 소용 속에서 성도들이 대림절에 주님의 초림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기쁨으로 기다리며 정의와 사랑의 실천으로 재림의 주님을 맞이 해야 할 것이라고 이들은 논평을 통해 밝혔다. 다음은 2024년 대림절 논평 요약이다.

대림절(待臨節, Advent)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기다리는 절기로, 기독교 교회력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시기이다. 이 절기는 단순히 형식적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깊은 의미를 묵상하며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

대림절은 성탄절과 연결되며, 단순히 성탄을 준비하는 시기를 넘어 진정한 신앙적 자세를 새롭게 하는 시간이다. 성탄절의 요란함 속에 대림절의 참된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초림은 구원의 기쁨을, 재림은 심판과 은총을 기다리는 준비의 시간임을 깨달아야 한다.

하나님은 형식적으로 지켜지는 절기를 받지 않으신다. 진정한 대림절은 회개를 통한 자기 부인과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이루어져야 한다. 마음을 열고 진리와 기도로 그분을 기다려야 하며, 우리의 삶이 죄로 물든 현실임을 인정하는 회개가 선행되어야 한다.

대림절의 기다림은 초림을 넘어 재림을 향한다. 초림의 기쁨과 재림의 심판은 동전의 양면과 같으며, 이는 신앙적 긴장 속에서 준비와 성찰을 요구한다. 그리스도의 탄생은 기쁨이지만, 그의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하며 우리 신앙의 중심을 바로 세워야 한다.

전쟁, 자연재해, 환경 파괴 등 종말적 현상이 가속화되는 현대에서 대림절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며 준비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 사회적 혼란과 개인적 죄악 속에서도 주님의 재림은 소망이자 은총의 사건이다.

대림절과 성탄절은 예수님의 성육신과 재림이라는 공통의 기다림을 지닌다. 대림절에서 준비된 신앙적 태도가 성탄절에도 이어져야 한다. 성탄절의 세속적 축제에 동조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탄생과 구속의 은혜를 묵상하며 대림절의 신앙을 이어 가야 한다.

결론적으로 대림절은 단순한 기다림이 아니라, 회개와 성찰, 그리고 재림의 소망을 품는 시간이다. 이는 세속적 혼란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새롭게 다지는 기회로 삼아야 하며, 진정한 감사와 기쁨으로 오실 주님을 맞이해야 한다. 2024년 대림절을 맞아 우리는 삶과 신앙을 돌아보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그의 초림과 재림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출처: 복음기도신문 종합).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자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누가복음 2:10-11,14)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베드로전서 1:13-15)

하나님, 초림하셨던 그때처럼 지금도 사회적 혼란과 어지러운 세상 한복판에서 소망 없는 영혼들에게 교회가 기뻐 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찬양합니다! 해마다 돌아오는 이 절기를 형식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소서. 대림절을 지나며 이 복음에 합당한 믿음으로 나아가 얽매이기 쉬운 죄악을 벗어나고 주안에 굳게 서서 임마누엘 하신 주님을 높이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다시 오실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바라며 담대히 기다리는 거룩한 신부 되게 하옵소서.

## 2. 북한을 위한 기도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연말 맞아 꽃제비 집중 단속...주민들 “또다시 뛰쳐나올 텐데”**  
단속의 진짜 목적은 조직을 통해 지도 통제를 받게 하려는 것...



북한 당국이 연말을 맞아 거주지를 이탈해 거리에서 생활하는 부랑자, 이른바 ‘꽃제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데일리NK 황해남도 소식통은 “도(道) 당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시·군 당위원회의 안전부가 협력해 꽃제비 단속 전담조를 구성하고 도내 전역에서 꽃제비 소탕 작전에 나섰다”고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현재 꽃제비 단속은 해주시의 서애·양사시장 등 주요 시장들과 역전, 벌이차 정차 구역 등 꽃제비들의 주된 근거지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런 곳들에 상주해 있는 단속 전담조와 규찰대는 꽃제비로 의심되는 사람이 발견되는 경우 아이뿐만 아니라 어른도 예외로 두지 않고 무조건 잡아들이고 있다.

그러면서 그는 “도당이 지시한 이번 단속의 진짜 목적은 거주지를 이탈해 일하지 않고 조직 생활에도 참여하지 않는 무정부주의자들을 찾아내 본래 거주지로 돌려보내고, 이들이 조직을 통해 지도 통제를 받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단순히 꽃제비를 없애겠다는 게 아니라 당국의 사상 통제와 교육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들을 다시 국가의 통제 체계 안으로 끌어들이겠다는 의도라는 얘기다. 현재 단속원들은 연행된 꽃제비들을 대상으로 본래 거주지와 직업, 출신 학교, 소속 기관 등을 조사하고 신분이 확인되는 대로 거주지로 이송 조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꽃제비로 단속된 이들의 상당수가 장사나 사업 실패로 생활 기반을 잃었거나 열악한 가정 환경을 피해 가출한 아이들, 탄광이나 농촌에서 일하기 싫어 도망쳐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돌아갈 곳이 마땅치 않다는 게 소식통의 말이다.

이 때문에 당에서는 거주지나 소속 기관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대상의 경우 집결소 같은 임시 보호소에 입소시킨 뒤 새로운 거주지를 마련해주는 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가운데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번 대대적인 단속으로 꽃제비들을 본래 거주지로 돌려보낸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또다시 거주지를 이탈하고 거리를 전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소식통은 “이 사람들은 조직 생활이나 노동을 하지 않고 거리에서 자유로운 생활을 경험한 이들이기 때문에 기회만 생기면 다시 길거리로 나가려고 한다”며 “이런 쓸데없는 단속을 왜 매년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비판이 많다”고 전했다.

또 다른 황해남도 소식통도 “꽃제비들은 이미 자신들만의 자유로운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조직 생활에 얽매이는 것 자체를 상당히 거부하는데, 그래서 다시 열악한 환경으로 돌아가 정착하라고 강요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며 “이들을 정착 시켜보아야 다시 뛰쳐나오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말했다(출처: 데일리NK 종합).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고린도후서 3:17-18)**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로마서 8:24-25)**

하나님, 고아와 가난한 자들을 돌보기 위함이 아니라 무정부주의자를 찾아내 국가의 통제안으로 끌어들이려는 그릇된 의도로 시작된 북한의 집중 단속을 주께 고합니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꽃제비들을 무조건 잡아 고된 노동과 체제 유지를 위해 이용하는 김정은 정권을 꾸짖어 주시고 이들의 악한 사상을 파하여 주옵소서. 주리고 헐벗어도 자유로운 생활을 놓칠 수 없어 하루하루를 근근이 사는 꽃제비와 북한 당국으로부터 자유를 갈망하는 자들에게 진정한 자유가 복음 안에 있음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의 성령을 이 땅에 부으사 보이지 않지만 참된 소망이신 그리스도로 구원을 얻고 그날을 기다리는 신부 된 교회로 영혼들이 세워져 주의 영광의 광채가 드러나는 나라 되게 하소서.

### 3. 다음세대를 위한 기도

####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라”

####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혼란 속 희망의 불씨 된 기독교청년들

SNS와 캠퍼스에서 나라 위한 기도 이어져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의 중심인물인 존 낙스(John Knox)의 이 말은 오늘날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에게 여전히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다. 영적 대각성의 불씨를 지폈던 낙스는 당시 혼란에 빠진 스코틀랜드를 위해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라의 변화를 이끌었다.

최근 대한민국이 계엄령 선포와 대통령 탄핵 촉구 시위로 혼란에 휩싸인 가운데, 기독교 청년들이 나라와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에 나섰다. 이들은 혼돈 속에서 나라를 위해 기도했던 존 낙스를 떠올리며 정치적 갈등과 사회적 혼란을 기도로 극복하려는 의지를 보였다.

SNS와 캠퍼스를 중심으로 ‘나라를 위해 기도한다’는 메시지가 확산되면서 크리스천들은 기도를 통해 변화의 불씨를 지피고자 했다. 지난 4일 오전 6시, 한 기독교 청년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지 않고 위정자들을 위해 간구하지 않았음을 회개합니다”라는 기도문을 올리며 믿음을 고백했다.

기독교 인플루언서 전대진 작가 역시 예레미야 29장 7절과 시편 122편 6-9절 말씀과 함께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혼란 가운데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길 기도합니다”라는 글을 SNS에 게시하며 국가를 위한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대학교에서 시국 관련 성명서 발표와 시위가 진행되는 가운데 캠퍼스 선교단체와 기독교 연합 동아리들은 종강예배와 기도 모임에서 국가를 위한 간구에 집중했다.

서울대학교기독교인연합은 지난 7일 아침 기도회에서 ‘국가와 민족을 위한 기도제목’을 인스타그램에 공유하며 모든 학생에게 함께 기도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한 기도’,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길 기도’ 등의 제목을 통해 국가를 위한 기도를 이어갔다.

중앙대학교 CCC(한국대학생선교회)는 같은 날 ‘12월 중보기도제목’을 통해 대한민국의 평안과 대통령, 국회의원들을 위한 기도 요청과 함께 이사야 32장 17절 말씀을 나눴다.

경희대학교 UCM도 12일 오후 6시 나라와 캠퍼스 학생들을 위한 기도회를 열었다. 이정민 UCM 간사는 “그리스도인의 사회 참여는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시작인 줄 믿는다”며 “캠퍼스 안에 성경적 정의가 바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등불이 이 나라와 청년들에게 꺼지지 않도록 함께 기도했다”고 전했다.

이화여자대학교기독교인연합은 11일 교내 예배실에서 열린 종강예배 후 기도회에서 디모데전서 2장 1-4절 말씀을 붙잡고 나라를 위해 기도했다. 이들은 “그동안 누렸던 평안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음을 잊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지 않았음을 회개한다”며 “예수님을 믿는 국회의원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가 세워지길 기도한다”고 전했다(출처: 국민일보 종합).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너희는 악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그 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이사야 35:1,3,5)**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림이여 질그릇 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시편 2:7-9)**

하나님, 정치적 갈등과 사회적 혼란으로 어려운 나라의 상황 속에서 기독 청년들이 깨어 주님 앞에 한국과 위정자들을 위한 간구로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저마다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며 자기의 옳음에 따라 살고 있지만 진리에 대해서는 맹인과 같은 영혼들의 눈을 밝히사 주를 보게 하소서. 기도의 자리에서 악한 손을 강하게 하고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주사 세상을 이기고 주님으로 충분한 주의 청년들 되게 하옵소서. 이들의 기도가 나라와 민족을 넘어 열방을 유업으로 받아 진리의 말씀으로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며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완성을 위해 의의병기로 일어서게 하소서.

다음은 ‘열방의 긴급기도정보’로 기도가 진행됩니다.

각 해당 장소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실1 -

기도실2 -

기도실3 -

소그룹별 기도가 마친 후에는 다시 함께 모여 합심기도로 마무리합니다.

기도정보제공: 기도24·365본부 prayer@prayer24365.org